



에덴뉴스

2018년
통합 12-80호

10月

03 에덴의 소식

에덴요양병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04 행복칼럼2018

류태희 목사가 전하는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

05 치유스토리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생생한 투병이야기

06 에덴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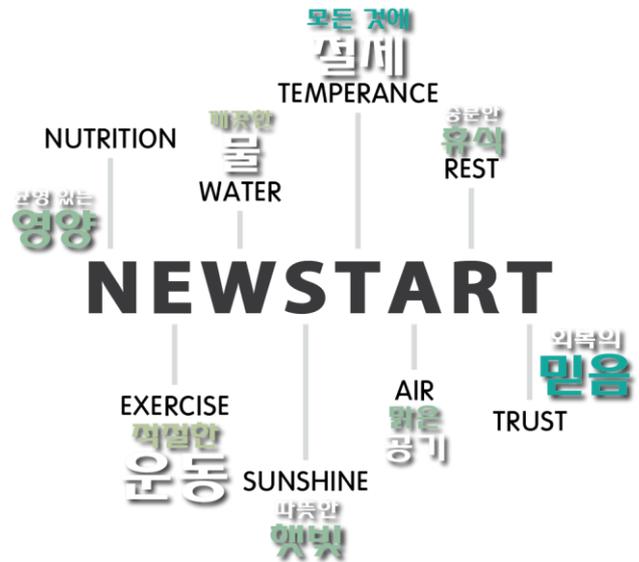
화이팅릴레이/나도 시인
웃어보아요/칭찬합시다



SPECIAL 편집장 특집

새로 시작하는 에덴, 다시 돌아보는 에덴

에덴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생활습관개선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요양병원은 치료가 목적이 아닌 완치를 최고의 목표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여덟 가지의 생활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의 시작
NEW START
EASH 에덴요양병원



T
Trust
믿음

그 여덟째가 신뢰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소화도 안 되고 정신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극히 당황할 때는 주변의 사물도 보이지 않고 바로 옆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은 어떤 약보다도 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빠르게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매일 좋은 말을 하기로 마음먹는 사람, 매일 긍정적인 말만 하려는 사람, 매일 좋은 생각만 하려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주는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크고 확실합니다.

++++ 올바른 믿음의 생활 ++++

- 반드시 회복된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 긍정적인 생각과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 마음을 비우고 최고의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 타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 신앙인은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NEWS 에덴의 소식

에덴병원교회 장막부흥회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안면도 연수원에서 장막부흥회를 열고 교우들의 친목을 도모했다. 류태희, 송정옥, 오정채, 이종근 목사가 강사로 단에 올라 말씀을 선포했으며 조별 특별순서를 통해 노래, 춤, 연극 등으로 함께 연합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전 직원 대상 낙상예방교육

9월 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사로 나선 김정열 간호부장은 어르신과 암 환우들의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습득하고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교육자료와 예증을 통해 유익한 정보들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했다.



에버그린센터 심인희 사무국장 국회의원 표창

에덴요양병원 에버그린센터(시설장 이경훈) 심인희 사무국장이 9월 13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심인희 사무국장은 평소 쾌활한 성격과 적극적인 마인드로 시설 어르신들의 건강과 유익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봉사하고 있다.



서한범 목사 건강강의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 여수요양병원장이며 현재 진안에서 목회 중인 서한범 목사를 초청, 건강강의를 진행했다. 서한범 목사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방법들을 유머스럽고 유쾌하게 전달하여 참석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직원동정

♠ 환영합니다 ♠

손덕수(영양과) 10월 01일 부
김세출(임상병리사) 10월 01일 부

♥ 수고하셨습니다 ♥

김보경(간호부) 08월 31일 부
백선경(간호부) 09월 30일 부
이천호(영양과) 09월 30일 부



행복칼럼[17] 원목실장 류태희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 사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3-25)

목회 2년차 전도사 시절의 일이다. 인턴 전도사 1년 과정을 서울 회기동 본부교회에서 마치고 첫 단독 목회지로 신장교회(지금의 하남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그 교회는 정식 목회자 없이 운영되던 소규모의 작은 교회였는데 초대 정식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안수 받기 전 목회 초년생의 열정으로 물불을 안 가리고 정말 열심히 방문도 하고 교회 일도 하였다.

그 교회에는 성도들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함께 조력하시는 정말 헌신적인 000 집사님이 계셨다. 봉사도 잘 하시고 방문, 청소, 안내, 시무, 안고 순서 등 정말 못하는 일이 거의 없는 다재다능하신 집사님이셨다. 또한 글씨도 잘 쓰셔서 사업계획서를 대필하여 제작하셨으며 그림도 잘 그리셔서 그 당시 교회 주보를 포함하여 홍보용 그림을 거의 다 그렸습니다. 작은 교회에 부임한 연약한 전도사의 조력자로서 꼭 필요한 분이셨다. 거의 매일같이 교회 일에 봉사하시며 함께 방문 다니시고 온갖 봉사를 다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찾아와 말하였다. “전도사님, 저 아무래도 이사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집사님 같이 큰 일을 맡으신 분이 이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집사님의 사연을 들어본 즉 믿음이 없는 남편이 매일처럼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싫어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예약했다는 것이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곳은 교회도 멀고 저녁 예배는 물론 토요일(안식일) 예배로 참석할 수 없을 만큼 외진 곳이었다. “집사님, 그곳으로 가시면 교회 일은 전혀 못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에 참여도 못하시고 신앙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로 이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이 말은 들은 집사님은 마음에 고민을 품고 남편과 의논해 보겠노라고 하면서 집으로 가셨다.

며칠 후 집사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아이고, 목사님. 아무래도 가야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한달 후로 이사 갈 날짜를 잡아 놓고 오늘 집 주인과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캄캄해 왔다. 한 사람이 이사를 와도 시원치 않은 연약한 교회 형편인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집사님이 이사를 간다고 하니 말이 나오지 않았다.

- ★ 감동나누기 : 글을 읽고 느낀 소감을 보내주시면 두 분을 선정하여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 보내실 곳 : 에덴요양병원 원목실(031-590-7591) 또는 이메일 (ecklth@hanmail.net)



나는 답답한 마음으로 그 집사님께 말했다. “집사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사가시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것입니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정말 그 신실하신 집사님을 그곳으로 이사 보내고 싶지 않은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은 했고 남편이 가장이니 여자로써 어찌 할 수 있으랴! 하나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사하기 일주일 전 금요일 저녁 예배 후 그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 빨리 와 보세요.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있어요.” 혈레벌떡 달려가 보니 이게 웬일인가? 그 남편이 다쳐서 병원 응급실에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를 다쳐서 이렇게 입원하게 되었습니까?” 물어보게 되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이사 갈 집에 도배와 장판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로 위로 늘어선 전깃줄에 오토바이 뒷바퀴가 걸려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고, 그 결과 무릎뼈가 부러지고 인대도 다 끊어지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사고 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살던 집으로부터 약 4km(10리) 떨어진 장소였다.

그래도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천만다행이었다. 목회자로서 보내기 싫은 마음에 말 한마디 했다가 사람 잡을(?) 뻔한 가책에 열심히 그 남편을 방문하고 잘 회복하도록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차 회복되어 갔지만 그 사고의 결과로 인해 여러 날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그 집사님 가정은 이사를 가지 못하고 살던 집에 머물러 살면서 교회 일에 계속 열심히 도와주시고 교회 예배에도 빠짐없이 잘 참석하셨다. 그 후에 남편은 그 헌신적인 집사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 성도가 되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젊은 전도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확히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 ‘하나님과 교회를 버리고 가시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것입니다.’고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십리쯤에서 사고가 나서 발목을 다쳤으며 결국은 이사가 가지 않고 교회 일에 더욱 헌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는 정말 기이하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해야 하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함을 교훈으로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을 줄을 알았더라.” (삼상 3:19-20)

STORY 투병이야기

죽을 것 같이 들어온 에덴 살 것 같은 희망으로

구명자

2018년 1월 16일

에덴요양병원에 첫 발을 디딘 나의 모습은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안쓰럽고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갈 정도로 파리한 모습이었다.

좌측 목에 재발한 유방암으로 인해 왼쪽 목과 폐와 허리, 척추 뼈, 무릎과 발목 그리고 날개뼈와 머리까지 전이 되어 수원에서 병원까지 남편 차에 몸을 싣고 허리에는 받침대를 대고 조심스럽게 병원에 도착했다.

당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공기의 양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이내 기침이 멈추지 않아 너무나 힘든 모습을 보고 원무과에서는 입원이 어렵다며 다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힘든 상황이라 사정사정하여 문제가 생기면 퇴원하기로 약속하고 겨우 허락을 받고 입원을 했다. 며칠 지켜보자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물도 넘기지 못하던 내가 입원 첫날부터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걸지 못하던 것이 맡겨지지 않을 정도로 입원 이틀 후부터 복도를 조금씩 걸을 수 있었다. 입원 3일째 되던 날 엄마가 걱정되어 전화를 건 아들에게 복도를 200m 정도 걸었다고 하니 맡겨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3월초에는 산책로 산책을 시도했다. 첫날은 0.9km 지점까지 다녀왔는데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도 들었으나 성취감과 함께 감사함이 나를 감동시켰다.

요가와 웃음치료, 아침체조 등 각종 운동치료와 산책과 병원에서 권하는 면역주사제와 천연치료 등 매일 매일 꼭 찬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피곤하여 편하고 규칙적인 수면이 가능해 졌고 시간 맞춰 나오는 건강 식사를 섭취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다.

9개월이 지난 지금 나의 몸은 2.4km나 3km를 기본으로 다닐 수 있고 본 병원 퇴원 당시 한보따리 안겨주었던 마약성 진통제를 휴지통에 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본 병원에서 8월에 찍어 본 CT와 뼈 검사결과도 너무 좋아 졌다는 이야기로 행복이 증가됨을 느꼈다.

이제는 잠도 피로가 개선될 정도로 충분한 수면이 가능해 졌고, 신촌 한방병원에도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여 다녀올 수 있으니 머지않아 완치의 기쁨을 누릴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의 기대대로 순조로운 회복을 기대하며 감사감사!!

시 하나



결정했어 행복하기로

조마하

오늘 나는
많이 웃기로 했어요
걱정 따윈 저 멀리 보내놓고
아무 걱정도 없는 아이처럼
방긋방긋 웃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칭찬 한마디 아끼지 않기로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장점을 찾아
기분 좋은 한마디 잊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행복하기로 했어요
마음먹은 만큼 행복이 따라오니까요
두 팔 가득 벌려 나에게 인기는 행복
밀어내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선물하기로 했어요
작당히 씩씩하고, 작당히 감성적이고,
작당히 울보인 내게 예쁜 꽃다발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내 삶은
그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요
내 방식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니까요



TODAY 따뜻한 하루



은혜를 갚은 개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임마누엘 칸트 -

기차길이 지나가는 작은 시골에서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일하던 농부는 이제 해도 뜨겁고 허기도 저서
식사하고 잠시 쉴 생각으로 그늘에 앉아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보지 못한 개 한 마리가 달려와
농부를 향해 맹렬히 짖어대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싶어 음식을 조금 던져주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고 짖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해하던 농부가 자세히 보니 개는
기차길 한쪽과 농부를 번갈아보며 짖어대었습니다.

“기차길 저쪽에 뭐가 있는 거니?”

호기심이 생긴 농부가 기차길 쪽으로 다가가자
개는 농부를 안내하듯이 앞장서서 뛰었습니다.
개를 따라간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소녀가 철로에 발이 끼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멀리서는 기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서둘러 소녀를 도와 발을 빼주었습니다.
소녀의 발에 상처가 조금 남았지만
다행히 기차가 가까이 오기 전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 집 개가 똑똑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이 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자 소녀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개가 아니라 조금 전 처음 본 개예요.
굶주린 것 같아서, 가지고 있던 빵과 물을
조금 나누어 주었더니 계속 따라오고 있었어요.
덕분에 살았네요. 정말 고마운 개예요.”

동물들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기에 배울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빵 한 조각처럼 작은 사랑이라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동물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본인들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출처 : 따뜻한 하루 / www.onday.or.kr

FOOD 몸에 좋은 제철 과일

배



삼한시대부터 재배해 온 배는 열매
중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약 80%
인데, 수분이 85~88%, 열량은
약 50kcal이다. 알칼리성 식품으
로써 주성분은 탄수화물이고 당분
(과당 및 자당) 10~13%, 사과산,
주석산, 시트르산 등의 유기산, 비
타민 B와 C, 섬유소, 지방 등이
들어 있다.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어 감기,
해소, 천식 등에 좋으며, 배변과 이
뇨작용을 돕는다. 가래와 기침을
없애고 목이 쉬었을 때나 배가 차
고 아플 때 증상을 완화해 주며 종
기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 밖에 해독작용이 있어 숙취를
없애 준다. 주로 날로 먹거나 주스,
통조림, 잼 등을 만들어 먹는다.



FIGHTING 화이팅 릴레이

간호부 서경외

저는 이곳 에덴요양병원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간호사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왜 이렇게 깊은 산골에 병원이 있는지,
 시내까지는 왜 이리 먼지, 차는 또 왜 이리도 없는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계절마다 바뀌며 피어나는
 여러가지 꽃들과 나무들이 조금씩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멍멍하던 음식들도 이제는 너무 맛있고, 힘이 되는 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는 더 적응이 힘들겠죠?
 가족과 처음으로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더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린다면
 분명 이곳에서 생활이 즐겁고 기쁜 일들로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웃음이 많아지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릴레이는 에덴직원들이 환우 여러분께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서경외님이 지목한 다음 주자는 '원무과장 오상국님'입니다.

칭찬합시다~

'오선영'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상대방까지 웃음이 생길 수 있게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 3층병동 서경외 -

고주파실 '이혁재'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친절한 말투와 편안한 표정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좋게 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10월에도 파이팅해요!!

P.s) 주기로 한 거 어여 주시고요~

- 홍보기획과 유환준 -



노래배달서비스

소중한 **이**에게 노래 선물하세요

나 자신을 응원하며 스스로에게,
 우리 친구 힘내라고 같은 방원 혹은 다른 방원에게,
 환우가 직원에게 직원이 환우에게
 누구에게나 노래배달을 신청하시면
 아침 8시 30분에 직접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프로그램에 사무실에 신청하면 일정을 협의하여 접수해드리고, 신청자 중 매월 한 분 추천하여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내선 615)

수기공모

환우들의 글을 모집합니다.

- 에덴에서 경험한 행복이야기
- 가족, 환우를 향한 사랑의 편지
- 감동을 주는 병실 에피소드
- 그 외 자작시나 수필 등

문의 홍보기획실 ☎610

지난 호 틀린그림찾기 정답

